

성공적 집회를 위한 철저한 준비 ‘끝’

- 풍물패 공연, 뉴 녹용 화형식 등 볼거리 풍성한 행사 -

9월11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오후 5시 전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된 절편녹용 수입저지 범 양복인 결의대회. 가을이라 하지 만 늦여름에 철저한 준비와 시간 계획 없이는 다소 지루하고 힘든 행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는 풍성한 볼거리 및 철저한 시간계획으로 일사분란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오전 10시, 행사는 풍물패의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미 본회에서는 전문 풍물패를 섭외, 행사당일 결의대회의 힘찬 출발을 알리고 이후 가두행진 및 행사 중간중간에 신명나는 풍물패의 공연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치기 쉬운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더불어 행사장 인근 주민들도 풍물패 공연으로 이목을 집중, 국내 양복이 처한 위기 사항 및 절박한 심정을 알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농악대의 공연이 끝나면 절편녹용 수입 압력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어진 후 대회 추진위원장 및 외부연사의 지지 연설이 진행된다. 이후 결의문 낭독에 이어 저질 뉴질랜드 녹용 화형식이 거행된다. 화형식 후

종묘공원에서 뉴질랜드 대사관으로의 가두 행진으로 1부 행사가 마감되며 가두행진시 대국민 호소문을 인근 시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 모든 행사에는 피켓시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본회에서는 50여개의 피켓을 제작 완료했다. 또한 각 개인에게는 시위 구호가 담긴 막대풍선이 지급되며 수십개의 플랭카드도 제작, 그야말로 종로 일대는 양복인의 물결로 넘실거리게 된다.

행사가 진행되는 무대는 대형차량 두 대를 연결, 무대 장치가 설치되고 여러대의 엠프를 통해 양복인의 외침이 증폭된다.

뉴질랜드 대사관 앞까지의 가두행진 후 곧바로 정부종합청사로 이동, 제 2부 행사에 들어간다. 때문에 별도의 점심식사 시간은 없으며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각 저희 및 모임, 개인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하게 된다.

정부종합청사에서의 집회 역시 풍물패의 공연으로 시작한다. 이후 대회 추진위원장 및 외부연사의 지지 연설이 이어지고 결의문 낭독 및 양복인의 결의에 찬 구호제창이 진행된다.

분노의 양록인 목숨걸고 나선다



▲ 집회시 필요한 피켓, 플랭카드 등은 중앙회에서 일괄 제작, 준비를 끝마쳤다

마지막으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에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범양록인 결의대회 행사는 마감된다.

이러한 모든 행사는 이미 종로경찰서 및

과천경찰서에 집회신고가 완료된 합법적인 행사로서 그 누구의 방해나 제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집회 신고를 포함, 행사에 소요되는 장비 및 개인별 준비물, 기타 행사 소요 물품 등은 본회에서 철저히 준비를 끝마쳤다. 따라서 금번 대회에 참석하는 양록인은 교통편과 점심만을 준비하면 된다.

특히 더운 날씨가 예상되므로 개인별 혹은 단체별로 충분한 양의 음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각 지회 및 단체에서 행사인원을 싣고 올 버스는 종로 경찰서와 과천 경찰서에서 주차를 안내하기로 합의되어 있다.

준비는 완벽하게 마무리 되었다. 많은 인원이 참석, 커다란 함성으로 9월11일을 맞이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한국양록**

절편녹용 수입저지 범 양록인 결의대회 구호

1. 2만 양록인 분개한다. 절편녹용 웬말이냐!
2. 우리몸엔 우리녹용, 수입녹용 필요없다!
3. 절편녹용 양록말살, 목숨걸고 저지하라!
4. 농가피해 외면하는 수입협상 백지화하라!
5. 우리시장 우리권리, 정부간 협상 거부한다!
6. 자국농민 보호외면, 정권유지 포기하라!
7. 절편녹용 억징요구, 뉴질랜드 각성하라!
8. 양심없는 통상압력, 단결하여 분쇄하자!
9. 저질녹용 수출확대, 우리국민 분노한다!
10. 남의시장 넘보지말고, 자국시장 개척하라!
11. 가격경쟁 앞세우지말고 품질로서 경쟁하자!
12. 썰어서 숨간다고 저질녹용 벗어나나?
13. 한국농민 죽이려는 뉴질랜드상품 사지말자!
14. 녹용협상 완전백지화, 거부하면 결딴난다!
15. 외화대체 환경친화, 양록육성책 수립하라!
16. 2만농가 30만두, 정규가축 등재하라!
17. 분열축종 지원없다, 단결만이 살길이다!
18. 수입녹용 검역강화, 국민건강 보호하라!
19. 불법유통 국산둔갑, 수입생녹용 저지하자!
20. 하나주면 모두달라 절편녹용 절대안돼!